



# 長壽에의 비결을 찾는다 ⑨

## 「유리기」란 못된놈 (2)

김 윤 기

### ● 「아미로이드」란 병

「유리기 (遊離基)」의 난동으로 우리 몸속에 생기는 물질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것은 「아미로이드」다. 일종의 단백질인 이 「아미로이드」는 뇌, 심장,간장, 콩팥, 비장등 신체내의 어느 기관에나 침착하여 그 기능을 쇠퇴시킨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침착물의 높이는 높아져 간다.

「아미로이드」의 침착이 심해져, 병적 증세가 나타나면 「아미로이드」증(症)으

로 부르기도 하다.

「아미로이드」는 흡사 동맥경화를 닮았다. 동맥의 안쪽벽에 끈적끈적한 기름때가 묻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것처럼 「아미로이드」는 울긋불긋 꽃가루처럼 몸속을 돌아다니며 이곳저곳 달라붙는다.(斑狀沈着)

뇌세포나 뇌혈관에 이것이 달라붙으면 바보가 된다. 노인들에게서 흔히 보는 노인성치매(老人性癡呆)같은 증세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수있다.

1964년, 「아인슈타인」의과대학의 「로버트·텔리」박사는 실제로 뇌에서 이 반상침착물(斑狀沈着物)이 「아미로이드」일을 발견한바 있다. 뉴욕주립「버펄로」대학의 「에반·칼기노스」박사는 『아미로이드가 이상행동이나 노년의 원인이라고 잘라 말할수는 없으나, 노화와 관계있는 물질임에는 틀림없다. 어쨌던 너무 광범위하게 이 물질이 생겨나고 있기때문에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만약 「아미로이드」가 노화촉진의 원흉이라면 이를 제거하거나 증격하는 무기가 필요하다. 「존스·합킨스」의과대학의 「지론·라이트」박사는 시험관안에서나마 「트립신」 효소를 응용하여 침착된 「아미로이드」를 녹여없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몸속에 있는 「아미로이드」 침착물을 녹여버리기 위해 이 효소를 투여했으나 별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라이트」박사의 실험에 의하면 51세남자의 콩팥과 간 세포에 생긴 「아미로이드」 침착물은 다소간 제거되었으나, 87세 남자에게선 실패였다.

### ● 「리포후스틴」의 정체는

유리기반응으로 생기는 침착물의 하나에 「리포후스틴」이란것이 있다. 이 물질은 나이가 들때마다 늘기때문에 「년령세포」로도 불리운다.

황갈색의 철분가루같은 이 물질을, 많은 학자들은 유해물질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노화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산물(産物)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와서 다소 생각이 바뀌고 있다. 1971년 취리히에서 열린 노화문제심포지움에서 「부리스틀」 연구소의 「찰스·코멘디」박사는 『리포후스틴이 정상적인 세포기능을 방해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노년기에 접어들어, 특히 뇌의 「뉴론」과 심근(心筋)중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해에 발행된 「医学世界情報」잡지의 특집호에는 3개의 약품이 「리포후스틴」의 침착을 분리시키고, 인공적으로 만든 뇌이상을 가진 생쥐의 학습행동을 회복시켰음이 보고되고 있다.

「에모리」대학 해부학교수인 「카린더스·난디」박사는 「센트로웨노키신」이란 이상한 약들을 실험중에 있다고 한다. 「난디」박사는 동물의 뇌에서 「리포후스틴」의 분포를 연구하고, 그가 발명한 약품을 투입, 「리포후스틴」의 생산을 더디게 하던가, 때로는 어떤 동물이나 곤충의 수명을 늘리게하는 실험에 부분적으로 성공하고 있다.

### ● 우연한 사건으로 발견된 약

「센트로웨노키신」은 이미 1959년, 프랑스의 식물학자 「듀이에」에 의해 학계에 보고된바 있었다. 실로 이 약품은 우연한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듀이에」는 연구실에서 화침에 어떤 약품이 들은 병을 창밖으로 내던졌는데, 마침 누렁개 잎이 시든 화초에 떨어졌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이 약품을 뒤집어 쓴 누런 화초들이 몇일 후 시퍼렇게 희생하는것이 아닌가. 「난디」박사는 이 우연한 사건을 우연으로 보지않고, 몰모트와 생

● 화장실용 세제 및 왁스

세제를 변기의 물에 타놓으면 살균 약취제거에 효과가 있으며 「불 크린」술에 묻혀 변기를 닦으면 오물이나 얼룩이 깨끗이 제거되는 화장실용 왁스가 있다.

● 좋은 비누 고르는 요령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비누를 손으로 눌러 보아 딱딱하고 윤기가 도는 것을 고른다.

○세탁비누는 심한 자극성이 없고 오래두어도 변질되지 않으며 물에 녹여보아 찌꺼기가 남지 않는 것이 좋다.

○세수비누는 향기가 산뜻하고 혀로 핥아보아 순하고 달콤한 것이 좋다.

● 쓰다남은 비누조각을 이용하려면

비누가 남아 작아지면 부스러져서 쓸 수 없게 된다.

이럴때는 버리지 말고 모아서 여러개가 되면 헌 나일론 양말을 잘라서 그 속에 넣고 쓰면 거품도 잘 나고 새비누같이 쓸 수 있다.

● 비누를 아끼려면

탈레비누나 세수비누는 사용전후 물에 녹아 소모되는 양이 많다.

비누 밑부분에 사이다나 콜라 뚜껑 2~3개를 꼽아 놓고 쓰면 항상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산뜻하게 오래 쓸 수 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시행했다.

실험결과는 놀라웠다. 늙은 물모트에 이 약을 주사한 결과 신경세포안에 침착된 「리포후스틴」이 줄어들기 시작, 나중에는 95%까지 소실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물모트는 6년생인데, 사람의 나이에 비하면 .90살과 맞먹는 나이이다. 「년령세포」의 감소뿐 아니라, 활동도 기민해지고, 식욕도 증진되었다.

생쥐에 대한 실험에서는 뇌와 신경세포에 붙은 「리포후스틴」이 줄어들뿐 아니라, 이미 침착된 색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대체로 이 주사

는 동물의 수명을 20% 연장시켜 주었다. 주사를 주지않은 생쥐는 약 2년밖에 못 사는데, 주사를 맞은 생쥐는 2년반이나 살았다. 이것은 사람의 나이로 바꾸면 100살까지 사는 셈이다. 파리에 대해서도 같은 실험을 했는데 수명이 약 30% 연장되었다.

프랑스, 서독, 스웨덴, 덴마크에서는 인체에도 실제로 투여, 노화방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병자의 수명을 연장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필자=醫事평론가·IMFA 대표>